

# 포장검사실 이관에 관한 의견

## Report of Packaging Inspect

### 1. 현상황

2000년 12월 31일부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KIDP)은 포장검사실의 업무를 종료하고 포장관련 단체로서의 이관 내지는 실험기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포장 관련 각 단체의 이해관계는 전면적인 이관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에 맞물려 실험기기의 매각도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진흥원의 포장분야 법적 근거를 상실로 인한 업무의 포기는 당연한 귀결이지만 아무런 대책없는 업무의 종료는 포장시험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사)한국포장개발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인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연구원 측이 예산문제나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원활한 운영이 가능치 않다는 것

이 포장관련 단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현재에 와서 부각되는 포장검사실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과정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1970~1980년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구 한국디자인포장센터, 한국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주요업무를 파악하면 연구사업(포장검사실 운영), 진흥사업(전시사업), 교육연수사업, 정보제공사업의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표 1]참조

이들 사업의 현재 이관 상태를 보면 연구사업의 포장기술개발사업은 현재 (사)한국포장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의 부족에서 오는 사업의 부실함이 지적되고 있으며 포장검사실 업무는 1995년 '산업디자인·포장 진흥법'의 포장분야 삭제 이후에도 KIDP가 운영했으나 올해부터 업무가 종료된 상태이다. 진흥사업(전시사

[표 1] 70~80년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포장관련 주요업무와 현재 수행기관

주요 사업 분야	대표적 사업	현재 수행기관
연구사업	포장검사실 운영	없음
진흥사업	서울팩(SEOUL PACK)전시사업	(사)한국포장협회
교육연수사업	포장관리사 교육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정보제공사업	출판사업(83년 창간 월간지 '포장기술')	(사)한국포장협회 '월간 포장계' 발행

업)의 대표적 사업인 서울팩(SEOUL PACK) 전 시의 경우 1999년 (사)한국포장협회,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KIDP),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 주최했고, 올해 전시의 경우 진흥원이 빠지고 (사)한국포장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최, 현재 개최일자를 확정(2001.10. 24~27)하고 추진 중에 있다.

교육연수사업의 대표적 사업인 포장관리사 교육은 아직까지도 진흥원이 주관하고 있고 정보제공 사업의 경우 (사)한국포장협회가 '월간 포장계'를 1993년부터 발행 업계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 일부나마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과거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구 한국디자인포장센터, 한국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주관하던 사업은 일부 기능 혹은 전체가 각 포장관련 단체 및 진흥원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포장검사실의 업무만 주관기관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 2. 포장검사실 업무 종료의 문제점 (수요자 측면에서)

포장검사실 업무 종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포장시험을 필요로 하는 많은 수요자에게 많은 불

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중기업의 경우 대부분 자체에서 각종 시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소기업이나 신규진출업체의 경우 시험이 필요해도 마땅한 시험기관을 찾을 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 각종 품질인증 및 규격획득(KS, ISO, Q마크 등)을 위한 시험성적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재질 시험의 경우 용기·포장분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산하인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이나 포장 공간 비율, 포장 횡수 등의 시험의 경우 환경부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검사기관으로 (사)환경마크협회 시험평가센터에서 행해지고 있다.

물론 이들 시험기관의 경우에도 각 기기의 보유대수, 축적된 기술 등에서 훌륭한 시험기관들이지만 시험의 분야가 포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타분야(생활용품 적정시험, 환경마크인증)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수요자가 포장용기를 개발해 KS 인증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한 시험을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사)환경마크협회 등에서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다. [표 2] 참조

[표 2] 현재 포장관련 시험 가능 기관

시험기관	(사)환경마크협회 시험평가센터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주요포장관련 시험업무	포장 공간비율 검사	각종포장용기의 재질 및 안전성 검사
특기사항	환경부고시에 의거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검사기관 인정 인정범위: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포장횡수- 포장재질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용기·포장분야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 식품위생검사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 시험업무 대행가능

### 3. 포장검사실의 이관 방안

현재 포장검사실이 인수기관을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이유에는 산업자원부에서 포장검사실의 인수를 매개로 (사)한국포장협회와 (사)한국포장개발연구원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보류시켜 놓은 감이 크다. 그러나 현재 양 기관의 통합협상은 (사)한국포장개발연구원이 이해관계를 고집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고 포장시험검사실의 처리문제는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 포장업계의 중요한 자산이 공중분해되고 마는 형국이다. 검사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산업자원부의 바램대로 (사)한국포장협회와 (사)한국포장개발연구원의 통합단체가 인수하면 더할 나위없이 좋지만 여건상 어렵다면 우선 한 단체가 무조건 인수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인수 후 운영상의 어려움은 정부지원과 포장업계의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각 단체가 공동으로 인수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익사업의 개발(과대포장 단속권, 각 기업의 포장방법 지도사업 등)과 정부지원이 필수적이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의 경우 자체 시험원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KOLAS(Korean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인증을 받아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발행하고 단체 표준규격 인증 등의 사업을 통해 업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또 하나는 현재 포장검사실의 업무를 이관할 만한 능력을 갖춘 곳 예를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

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의 기관에서 인수 포장분야만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포장업계와 각 단체가 지원을 하는 방안이다. 이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산하 시험기관들은 그동안의 기술력, 예산이나 전문인력 의 보유 등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4. 발전 모색

환부가 생겼을 때 과감히 절개하고 봉합한다면 순간의 아픔은 크지만 상처의 재발은 막을 수 있다. 지금의 포장검사실의 인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1995년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의 포장분야 삭제이후 파생된 문제점의 하나인 포장시험검사실의 문제는 그동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절개는 하지 않고 임시 처방으로 반창고만 덕지덕지 붙인 형국이다. 임시 변통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번 기회에 포장시험검사실의 문제가 확실히 매듭지어졌으면 한다. 포장업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필수적이다. 업계 발전을 위해 없던 시험연구기관도 새로이 신설해야 할 마당에 하물며 있던 시험기관까지 포기한다는 업계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순한 수익사업의 창출이라는 개념에 앞서 보다 중요한 논리는 시험 수요자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면 해답은 간단히 나올 수 있다. 지금도 포장시험을 하고자 각 시험기관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포장업종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번듯한 시험기관 하나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ko]

박기진 기자